

>> 인쇄단체 · 기관 뉴스

◆ 동 정

- ▶ 서상준 서울인쇄정보조합 산악회 회장은 지난 4월 24일 전북 부안군 내변산에서 회원들과 함께 정기 산행을 개최했다.
- ▶ 한용근 서울인쇄정보조합 낚시회 회장은 지난 4월 30일 백학저수지에서 제9회 인쇄문화인낚시회를 개최했다.
- ▶ 박종관 (주)한국빠야제 회장이 지난 3월 28일 열린 한국출판경영자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 화 축

- ▶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대표이사의 장남 지혁 군이 지난 4월 11일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화축을 밝혔다.
- ▶ 김억기 열린애드 대표의 차남 상운 군이 지난 4월 23일 그랜드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화축을 밝혔다.
- ▶ 원중희 청주시립도서관장(전 직지사업과장)의 차남 종남 군이 지난 4월 10일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에서 화축을 밝혔다.
- ▶ 김범열 세종상사 대표의 장녀 소영 양이 지난 4월 2일 서울컨벤션에서 화축을 밝혔다.
- ▶ 송길수 유림문화 대표의 장녀 유리 양이 지난 3월 26일 강남웨딩컨벤션홀에서 화축을 밝혔다.
- ▶ 김숙현 문화기획 대표의 4녀 한나 양이 지난 3월 26일 엘리시안 웨딩홀에서 화축을 밝혔다.
- ▶ 홍사용 한영문화사 대표의 차남 일선 군이 지난 4월 23일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화축을 밝혔다.
- ▶ 유명호 (주)중앙문화인쇄 대표이사의 아들 경상 군이 오는 5월 7일 오후 1시 리츠칼튼서울호텔에서 화축을 밝힌다.

▼ 대한인쇄문화협회 제1회 이사회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제40대 임원 상건례를 겸한 제1차 이사회를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 호텔PJ에서 개최했다. 김남수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40대 임원으로 취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업계의 난관을 극복하고 인쇄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가는데 앞장서고, 인쇄업계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김남수 회장은 “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협회 산하에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협회 및 업계의 발전과 수출증진, 장학사업, 법률개정, 미래 비전을 발굴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남수 회장은 “이처럼 해야 하는 일이 많은 가운데서 서울조합에서 월 2백만원씩 납부하던 회비를 지난 3월부터 전격 중단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에 대해 모두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안심의에 앞서 유창준 전무이사는 국고 및 지방비 지원사업과 협회의 주요 업무, 올해 추진사업, 1/4분기 추진업무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는 1/4분기 재무제표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포상심사위원 선임의 건은 회장에게 위임했으며 특별회원 가입의 건도 승인했다.

▼ 인협 임원진, 문화부 출판인쇄과와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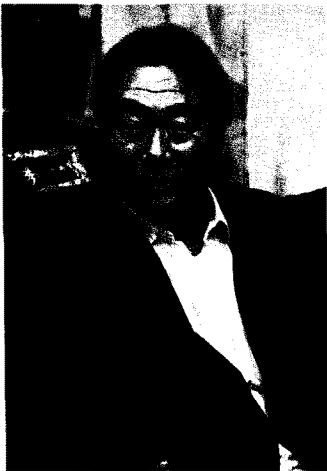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과 나기주 과장을 비롯한 사무관, 주무관이 참석한 ‘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증식당 진아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남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쇄업계에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인쇄업계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나기주 과장은 이에 대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5개년 진흥계획을 마련 중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측에서 김남수 회장과 민창준 부회장, 유창준 전무이사, 이국홍 협회국제경영력강화위원장, 전익성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쇄업계 현안과 수출증진 방안, 기자재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일본 IBC출판그룹 히로시 카가와 사장, 인협 방문



일본 IBC출판그룹 히로시 카가와 사장이 지난 4월 20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방문, 김남수 회장과 양국 출판인쇄 교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최유수 삼보인쇄사 대표도 함께했다.

김남수 회장은 “한일간 출판인쇄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 같은 일에 히로시 카가와 사장님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히로시 카가와 사장은 “현재 일본은 대지진 여파로 인쇄출판계가 일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출판인쇄계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히로시 카가와 사장은 인쇄문화회관 5층에 조성되어 있는 인쇄문화역사관을 돌아보고 “유럽 인쇄 역사와 비교할 때 한국이 역사와 전통이 깊기 때문에 그런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등에서 함께 전시하고 보여 준다면 한국 인쇄문화의 우수함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전

- ▶ 세진인쇄(대표 강성덕)는 최근 사업장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파주인쇄정보산업단지로 이전했다. 변경된 전화번호는 031-946-1801~2이며, 팩스번호는 031-946-18330이다.
- ▶ 소안인쇄(대표 이증기)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오장동 90-20 3층으로 이전했다.
- ▶ 세광제록스(대표 이광섭)는 최근 사업장을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아이티타워 102호로 이전했다.
- ▶ (주)나무와물고기(대표이사 이경헌)는 최근 사업장을 성동구 성수2가 271-25로 이전했다.
- ▶ 창평기획(대표 이철영)은 최근 사업장을 강동구 성내동 557 초성빌딩 102호로 이전했다.
- ▶ 중랑프린팅(대표 한광수)은 최근 사업장을 중랑구 중화동 110-48로 이전했다.
- ▶ 광장인쇄(주) (대표이사 강계향)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필동3가 40-2 정진빌딩 3층으로 이전했다.
- ▶ 서울특수인크(대표 고영)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필동2가 19-4로 이전했다.
- ▶ 클론코리아(대표 김기문)는 최근 사업장을 용산구 한강로 2가 314-1 용성비즈텔 1801-2호로 확장 이전했다.

▼ 대한인쇄연구소, 2011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대한인쇄연구소(이사장 고수곤)는 지난 4월 7일 인쇄정보센터 7층 회의실에서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고수곤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비가 오는 가운데 참가해 주신 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우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 연구소도 다른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인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부의사항으로는 2010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승인, 2010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이 상정됐으며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특별기금 확충에 관한 방안, 해외 인쇄업체 교류를 통한 번역사전 발간사업, 2012년 EBS 방송교재 품질관리 사업들이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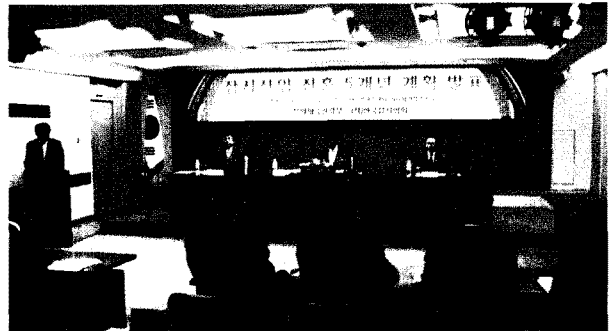
▼ **장항동 기업인협의회, 어르신잔치 열어**



장항동 기업인협의회(회장 조병갑)는 지난 4월 25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새천년부에서 장항동에 있는 일산동구 노인회 소속 각 경로당 노인 700여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조병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국가와 후손을 위한 여러 어르신들의 수고와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며 “장항동 기업인협의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 어르신의 노고에 자그마한 보답이라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항동 기업인협의회는 인쇄출판기업이 거대한 단지를 이루고 있는 장항동 지역의 기업인들이 연대와 친목을 위해 결성한 단체로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장항동 지역에 분포된 기업은 모두 1500여개로 고양시 최대의 기업단지를 이루고 있다.

▼ **문화부, 집지산업진흥 5개년 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지난 4월 7일, 문화부 박선규 제2차관, 잡지협회 이창의 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현호 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집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집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4대 핵심 과제로 ▲집지 산업 진흥 인프라



구축(45억 원) ▲잡지 콘텐츠 품질 제고 및 디지털화 지원(240억 원) ▲유통 구조 개선 및 독자 주변확대(77억 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71억 원)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16개의 세부 사업에 총 4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에 50억 원 지원 등 5개년(2013년 90억 원, 2014년 94억 원, 2015년 95억 원, 2016년 104억 원)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원액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요 예산의 재원은 국고 184억 원, 언론진흥기금 226억 원, 민자 17억 원, 기타 6억 원으로 총당된다. 박선규 차관은 4대 과제 16개 세부 사업의 중점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창조적인 지식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잡지협회 이창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잡지인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며, 문화부에서의 정책 수립은 완성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결실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포장기계협회, 춘계 단합등산대회 개최**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이일해)는 지난 4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수락산을 찾아 춘계 단합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포장기계협회의 등산대회는 협회원사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수락산 등산대회는 꽃 피는 봄을 맞아 협회원사간 단합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등산대회에서 참석자 전원 이 낙오자 없이 정상인 도정봉에 올랐으며 참가자들은 공장과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의 상쾌한 공기를 들어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니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만족을 표했다. 이일해 회장은 “올 가을에는 더 많은 협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단합대회를 만들어 보겠다. 1

박 2일의 일정으로 추계 단합대회를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백국인 사장, 서울 서대문구상공회 5대 회장 취임



서울상공회의소 서대문구상공회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에서 제5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에 제 5대 회장에 취임한 백국인 서대문구상공회장은 한학문화 대표로 카피엔프린팅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이화여대 교내 복사실과 의과대학 복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림산업 등 6개사에서 복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취임에는 문석진 서대문구 구청장, 정두언 국회의원(한나라당), 이성현 국회의원(한나라당), 황춘화 서대문구의회의장, 우상호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백국인 서대문구상공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난과 매출감소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공간과 접근성 확충을 통해 서대문구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그동안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3년은 일하고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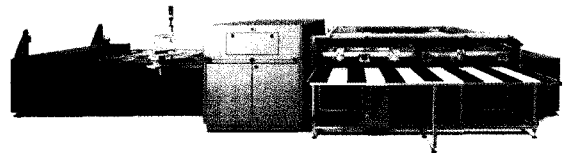
▼ 만로랜드 IGAS 전시회 대신 일본 지진 피해복구 지원



만로랜드코리아의 케네스엠 한센 회장은 지난 3월 24일 만로랜드 한국지사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인쇄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케네스 엠 한센회장은 만로랜드 한국지사사와 일

본지사의 총책임자로 있는 만큼 지진과 해일이 일어난 직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 머물며 일본지사와 일본고객의 피해를 확인했다. 이후에도 2~3차례 일본을 방문해 만로랜드 본사와 긴밀히 연락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만로랜드 일본지사는 도쿄본사에 있는 중요 자료를 비교적 안전한 지역인 오사카로 이동하고 부품센터를 신설했다. 또한 만로랜드 일본지사는 32개 인쇄사가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2명의 엔지니어를 센다이로 파견했으며 파견 직원들을 통해 피해 고객과 피해 규모,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을 확인하여 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고객들의 피해 상황이 매우 다양하여 각각의 고객들은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긴급구호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만로랜드는 우선 9월 23일 열릴 예정인 IGAS 전시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 전시예산인 20억원을 예산을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의 사업 복구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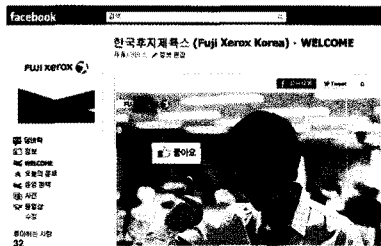
▼ HP, 사이텍스 지역 솔루션 센터에 FB7500 도입



HP는 홍콩에 위치한 HP 사이텍스 지역 솔루션 센터에 FB7500 프린터를 도입하고 대형 디지털 출력 솔루션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출력 환경을 위해 설계된 HP 사이텍스 FB7500 프린터는 UV 평판식 프린터로 근거리의 고품질 구매 시점 진열물, 판매 시점 진열물(POP/POS) 애플리케이션, 전시 그래픽, 간판,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포스터 등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최대 500평방미터의 속도와 날장 3/4 자동 로드 기능으로 용지 간 유휴 시간을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는 사이텍스 FB7500은 동일 가격대의 디지털 평판식 프린터 중 최대 생산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HP의 설명이다. HP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 이미징 프린팅 그룹의 그래픽 솔루션 사업부 마틴 카발로(Martin Carballo) 책임자는 "HP 사이텍스 지역 솔루션 센터에 FB7500 프린터를 설치한 것은 HP가 가장 폭 넓은 대형 디지털 출력 기술 제품군과 토털(end to end)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HP 소비자들은 이제 HP의 최신 기술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출력 요구에 부합하는 디지털 출력 솔루션을 선택할 때 올바른 정보에 기반해 더욱 올바른 제품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P 사이텍스 지역 솔루션 센터는 엔지니어들과 사이텍스 장비 운영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종합 제품 교육과 연성 용지 및 고강도 용지의 그래픽 출력을 위한 최초의 종합E2E 솔루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한국후지제록스,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오픈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4월 1일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오픈하고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한국후지제록스의 페이스북 페이지(<http://www.facebook.com/fujiflex.korea>)는 기업의 최신 소식은 물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용한 정보, 재미있는 동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일방적인 기업 홍보가 아닌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주기적으로 제시하여 자유로운 대화와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상인 마케팅실장은 “한국후지제록스는 B2B 기업이지만 고객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블로그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페이스북은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오늘의 직장 운세’ 이벤트를 실시, 한국후지제록스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이벤트 탭의 모퉁이 버튼을 클릭하면 한 줄 직장 운세를 보는 고객에게 즉석에서 총 1천 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 성도GL/성도솔루션, 전문가 초청 강의



성도GL/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4월 18일 인쇄업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업계에 대한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강의에 초청된 강사는 트렌드 미디어(월간PT)의 김용찬 대표이사였다. 이번 강의는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만들어졌으며 성도GL/성도솔루션의 전 직원이 함께 하며 다양한 질문과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성도GL/성도솔루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하여 임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주도하여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성도GL/성도솔루션, 퍼플포스원 CTP 시스템 런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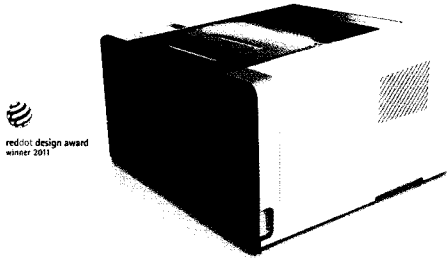
성도GL/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5월부터 퍼플포스원 CTP 시스템을 런칭한다고 밝혔다. 퍼플포스원은 순수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멀 CTP 장비, 후지필름 고유 기술의 현상기 자동 관리 시스템, 최고의 인쇄 품질을 자랑하는 후지필름 서멀 플레이트의 조합으로 무현상판 처리, 친환경 시스템, 원가 경쟁 우위를 실현하는 강력한 CTP 시스템이다. 성도GL/성도솔루션은 치열한 생존 경쟁 환경 속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퍼플포스원 시스템은 친환경 기술과 더불어 순수 국내 기술인 세계 최초 서멀레이저 128 Channel 멀티 다이오드 기술 구현으로 국전기준 시간당 40장의 고속 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순수 기술의 유일한 장비라고 전했다. 또한 멀티 레이저 모듈, 각종 PCB 기판 등의 전 부품의 국내 조달로 저렴한 유지 보수 비용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품이다. 성도GL/성도솔루션은 퍼플포스원의 “런칭 기념 시스템 전라인 부품 포함 무상유지보수 5년” 스페셜 프로모션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에 대해 성도GL/성도솔루션은 인쇄업계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품질의 안정성 보장과 동시에 유지보수비용의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및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신도리코, 현대카드 등에 보안 솔루션 구축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최근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캐머셜 3사의 통합 보안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도리코는 국내 최초로 각 3사의 본사는 물론 전국 지점에도 동일한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앞선 기술로 체계적이고 철두철미한 보안 솔루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리코의 보안솔루션은 복합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중요문서 유출 및 사본생성을 획기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특징으로, 사전·사후 관리가 모두 가능해 정보 유출을 완전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신도리코는 완전 자동화되어 일상 업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안 수준이 강화되는 것이 장점이며 사원증으로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하고, PC에서 출력을 보내면 사내 복합기 어디에서나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프린트(U Print)’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어 사내 서버에 연결된 복합기 어디에서나 사원증을 대면 본인이 전송한 출력물이 바로 나오므로 문서 분실 위험은 줄고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다고 전했다.

▼ 신도리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1' 수상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최근 세계적 권위의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Reddot Design Award) 2011'에서 2011년 신제품 라인업이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 (Reddot Design Award winner 2011)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굿디자인어워드, 영국의 D&AD, 와 더불어 세계 5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히는 산업 디자인 공모전으로 신도리코는 지난 '굿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금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글로벌 디자인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서 또 한번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에는 지난해 출시된 레이저 프린터 'A400' 시리즈를 비롯해 올 해 출시 예정인 신제품이 모두 포함되어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신도리코는 전했다. 신도리코의 2011년 신제품 라인업은 외형적 변화뿐 아니라 본질적 혁신을 추구한 제품으로 뛰어난 디자인을 바탕으로 프린터와 복합기가 사무공간 중앙에 오브제로 자리매김하여 사무기기의 본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외관에 블랙과 화이트 컬러를 조화시켜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고품택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에 특별함을 더했다. 또한 시각 모서리를 부드러운 곡면으로 설계, 사용자의 안전성까지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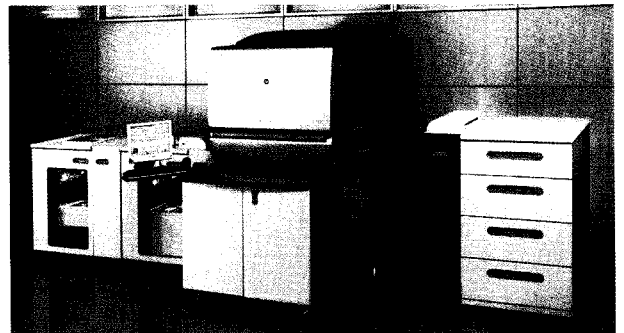
▼ 한국코닥, 광주서 UWS세미나 열어



한국코닥(대표 이수범)은 지난 3월 24일 광주 히딩크호텔에서 코닥 UWS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은테크와 신도리코가 함께 참여하여 코닥의 솔루션들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으며 약 80여명의 광주지역 인쇄사업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코닥의 이수범 대표이사과 장은테크의 송동근 대표이사의 인사말에 이어진 첫 발표는 장은테크의 최성락 이사가 2011년 장은테크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Kodak CTP 장비를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코닥의 최준호 부장이 코닥 통합 워크플로 솔루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코닥 통합 워크플로 솔루션은 인쇄 및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을 종합하여 하나의 응집력 있는 워크플로 솔루션으로 비즈니스, 생산, 컬러, 데이터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이다. 이날 소개된 통합워크플로 솔루션은 Kodak Prinergy, Kodak ColorFlow, Kodak InSite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신도리코의 백성원 과장이 코닥 넥스프레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코닥의 이수범 대표이사는 “금번 세미나를 통해서 코닥 통합 워크플로 솔루션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쇄와 CTP 장비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1년에는 광주를 시작으로 지방에서 코닥의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HP,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대전 참가



한국 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20회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대전(Photo & Imaging 2011)에 HP 인디고 디지털 프레스 5500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한국HP는 “포토, ‘복’이 되다”를 주제로 ‘HP 인디고 디지털 프레스 5500’의 디지털 인쇄를 통해 출력된 포토북, 포토앨범, 포토 달력 등 다양한 포토 관련 상품들을 전시했다. 갤러리 형식으로 전시된 HP 고객사의 포토상품들은 전시, 사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서부터 전문 사진가를 비롯 스튜디오, 포토 관련 비즈니스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HP 인디고 디지털 프레스 5500은 매월 컬러 150만 페이지 이상, 단색 500만 페이지 이상의 출력이 가능하며 기존의 (CMYK외에 사진 전용 잉크인 라이트 시안, 라이트 마젠타 잉크를 추가하여 인화사진과 같은 수준의 출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그래픽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부 김병수 이사는 “한국HP는 디지털 인쇄를 통한 포토 시장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인은 물론 비즈니스 고객에 이르기까지 인디고 디지털 프레스로 인쇄된 다양한 포토 관련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포토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성진에드컴,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출품**



성진에드컴(대표 이정희)은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에 출품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를 비롯, 25개국 120개 업체가 참가하여 최첨단기술의 사진영상 관련 기자재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최근 1460만 화소의 미러리스 카메라 'NX11'을 출시하며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일본의 캐논, 니콘, 소니, 올림푸스, 파나소닉 등에서 첨단기술이 탑재된 DSLR 및 미러리스 카메라, 캠코더 신제품을 선보이며 참관객들이 직접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은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국제전시연맹(UFI)으로부터 국제전시인증을 받았고 10년 연속 지식경제부 유망전시회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상담액 1600만 달러, 계약 6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성진에드컴은 POD출력시스템으로 제작된 고품질 인쇄물과 포토북 등을 선보여 호응을 받았다. 한편, 성진에드컴은 최근 점자로 제작된 명함을 출시했다. 이 명함은 시각장애인인 물론 비장애인들도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 **고모리, 일본 지진피해 정상화 단계**



고모리코퍼레이션은 지난 3월 12일 일본대지진에 따른 피해가 정상화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호텔PJ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모리본사 수출부장인 쿠보테라(Kubotera)씨는 “얼마전 일본대지진으로 인하여 일부 한국고객들께서 고모리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안

다. 그러나 고모리의 쓰쿠바공장 및 관련공장들은 모두 내륙 깊숙이 위치하고 있고, 진도 9에도 견딜 수 있는 첨단설비를 갖추고 있어

금번 동북지방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 다만 계획정전 등으로 인한 일부 부품 협력업체의 조업차질이 있었으나 이 역시 거의 정상화단계로 회복되고 있어 향후 한국시장에 대한 기계 및 부품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오키시스템즈**

2011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한국오키시스템즈(대표 유동준)은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11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KOPPEX 2010)'에 참가해 자사의 조달 우수제품을 선보였다고.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국내 조

달시장에 본격 진입한 오키는 2009년부터 나라장터 엑스포에 3년 연속 참가했으며 최근 발표한 신제품을 포함해 총 14개 기종을 선보였다. A4 흑백프린터 4종(B410d, B430dn, B411dn, B431dn), A4 컬러프린터 4종(C310dn, C510dn, C530dn, C610dn), A3 흑백 프린터 2종(B820dn, B840dn), A3 컬러프린터 3종(C8600n, C9650dn, C830dtn), 컬러복합기 1종(C3530MFP) 등 조달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고속기와 조달등록 예정 제품을 선보였다.

한국오키시스템즈 유동준 사장은 “환경 부문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얼마나 친환경적인지가 프린팅 부문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 받는 시대가 됐다”며 “오키는 하지만 앞으로 출력량이 많은 관청, 일반 기업들까지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키는 참관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로 오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추첨을 통해 C310dn A4 컬러프린터를 매일 1대씩 증정했다.

▼ **제1회 G7 Summit Korea 개최**

제1회 G7 Summit Korea가 지난 3월 23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한강홀에서 열렸다. 월간 인쇄계와 동국대학교 RIS사업단이 주최하고, IDEAlliance Korea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G7방식과 그 기술적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는 G7방식을 개발, 세계적인 컬러품질관리방식으로 발전시킨 돈 허제슨(Don

Hutcheson, HutchColor LLC대표)씨와 론 엘리스 컨설팅(Ron Ellis Consulting)대표인 론 엘리스(Ron Ellis)씨가 참석해 G7에 대한 개괄과 기술적 트렌드 및 적용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아그파코리아의 김진영씨와 휴닉스의 명노삼 대표가 G7건설팅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G7마스터인증을 취득한 한영문화사 홍사룡 대표가 인증을 취득한 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KBA삼우 박도영부장의 G7마스터 컨설팅과정을 설명했다.

G7형식은 돈 허체슨 씨가 ISO표준에 의거해 개발한 컬러 및 프로세스컨트롤 방식이다. 컬러 및 프로세스 컨트롤을 위한 전통적인 방식의 TV측정방식과 함께 그레이밸런스(Grey Balance)와 NPDC(Neutral Print Density Curves)를 정의함으로 다양한 장비의 컬러를 매칭할 수 있는 방식이다. G7은 그라콜(GRACo) 7 스펙을 지원하는 새로운 캘리브레이션 방법으로 G는 그레이밸런스를 캘리브레이션하는 것을 지칭하고, 7은 ISO 12647-2의 인쇄 표준색인 청록(C) 자홍(M) 노랑(Y) 검정(K) 빨강(M+Y), 녹색(C+Y) 파랑(C+M)에 따른 7가지 주요색상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의미를 포함해 상표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최근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김영진 미래엔 대표는 “이번 사명변경은 전통의 대한교과서가 문화기업으로서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선언하는 의미”라면서 “2011년 교육출판의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끊임없이 신 사업동력을 확보, 대한민국 대표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48년 교과서 전문기업 ‘대한교과서’로 출발한 미래엔은 그동안 9000여종을 발행한 교과서 사업을 비롯해 교재, 출판, 인쇄 등 4대 핵심 사업을 진행하며 지난해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 한컴, 맥용 ‘한컴오피스 한글뷰어’ 무료 배포

한글과컴퓨터는 매킨토시 사용자들을 위한 맥용 ‘한컴오피스 한글 뷰어’를 한컴 홈페이지와 맥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한컴오피스 한글 2010’ 기반의 맥 전용 뷰어 프로그램으로 매킨토시 사용자가 뷰어를 통해 한글 문서를 바로 열람하거나 인쇄 출력할 수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매킨토시 PC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늘어가는 추세에 맞춰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컴오피스 한글2010’의 수식 및 폰트를 반영해 구현시켰으며 맥 OS 10.5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글 97’에서부터 ‘한컴오피스 한글 2010’의 한글(HWP)문서 및 한글 서식 파일(HWT)까지 지원한다. 제품 출시에 앞서 실시한 비공개테스트(CBT)는 시작 3일 만에 2000여명의 신청접수가 몰려 사용 신청을 조기 종료하기도 했다.

▼ 미래엔컬처그룹, ‘미래엔’으로 사명변경



미래엔컬처그룹(구 대한교과서, 대표 김영진)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미래엔’으로 변경하고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출판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엔은 창립 60주년이던 지난 2008년 교과서 기업으로 인식되던 회사이미지를 탈피하고 업종 다각화를 통해 지식정보 문화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 기존 대한교과서에서 미래엔컬처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엔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미래에는’ 등의

▼ 어도비, 어도비CS 5.5 발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4월 12일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 5.5 (CS5.5)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도비는 앞으로 CS 신제품 버전을 2년 주기로 발표할 계획이며, 이번 5.5발표를 시작으로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기 전에 중간 버전을 출시함으로써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장 최신의 기술을 더욱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어도비 CS5.5 중 CS5.5 디자인 프리미엄 스위트는 이미 세계적인

잡지와 출판업계에서 태블릿 용으로 디지털 에디션을 출판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최신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디자이너들은 인디자인 CS5.5와 함께 통합된 플리오 프로듀서 툴킷을 활용해서 태블릿 기기를 위한 페이지 레이아웃에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성을 부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 파노라마, 360도 회전과 이미지 팬(pan)과 줌(zoom), HTML과 HTML5 콘텐츠의 통합을 제공하는 CS 5.5는 태블릿 용 콘텐츠의 출판과 판매, 분석을 위한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와 결합하여 강력한 디지털 읽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지준영 대표이사는 “기업과 정부는 물론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관심과 그 요구 사항이 높다. 어도비는 CS5.5발표를 통해 최고 품질의 콘텐츠를 위한 기술과 툴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정부, 교육계 모두가 이러한 혁신적인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홈페이지 www.adobe.com/kr/purchase

등에서 장기적으로 온습도 변화를 측정하는 데 편리하다. 특히 충격에 강한 메탈 하우징으로 제작되어 거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현장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이다. 패스워드 기능으로 보안 강화, 배터리 소진 시에도 데이터의 분실 염려가 없으며, 패드락을 이용한 도난 방지와 벽걸이 홀더도 있다. 또 USB와 SD카드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측정 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읽어내고, 윈 버튼 식 메뉴 탐색과 밝은 백라이트로 어두운 곳에서 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testo.co.kr

▼ **테스토코리아**
박물관에 최적인 데이터로거 시리즈 출시



테스토코리아(지사장 이명식)가 보다 안정성, 편리성을 강화하여 온습도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거 testo 175 시리즈와 testo 176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데이터로거 시리즈는 정확한 온습도 관리가 필요한 박물관 및 미술관, 자동화 창고, 문서저장고 및 장기간 동안 온습도를 측정해야 하는 생산, 유통, 제조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거다. 4종류의 testo 175 시리즈는 최대 1백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수명이 긴 배터리덕분으로 3년 동안 안심할 수 있어 냉장, 급속 냉동실 및 전문적인 온도 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장기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곧 국내에도 선보일 7종류의 testo 176 시리즈는 최대 200만 개의 데이터 저장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수명이 8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민감한 현장, 냉장분야, 식품 섹션 및 연구실

▼ **니콘이미징코리아, D5100 발표**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특수 효과 모드를 통해 마치 영화 같은 동영상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보급형 DSLR(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D5100을 지난 5일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이번에 선보인 D5100은 특수 효과 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동영상 기능 외에도 다양한 앵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멀티 앵글 액정 모니터 등 다채로운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초보 DSLR 카메라 사용자나 여성 사용자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D5100은 초당 30프레임, 1920×1080 사이즈로 음성을 포함한 풀 HD동영상을 최대 20분 연속 촬영할 수 있는 디무비(D-Movie)를 탑재했다. 특히 촬영하고 싶은 컬러를 선택하면 나머지 부분을 흑백으로 묘사하는 셀렉트 컬러를 비롯해 컬러 스케치, 미니어처 효과, 나이트 버전, 실루엣, 하이키, 로우키 등 특수 효과 모드를 동영상이나 정지 화면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커맨드 다이얼로 원하는 특수 효과 모드를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어 초보자도 손쉽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작품을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동영상 촬영 중이나 라이브 뷰 촬영에서 포커스 포인트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촬영 대상의 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타겟 추적' 기능도 탑재하고 있어 보다 선명하고 정확한 촬영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www.nikon-image.co.kr

▼ **에스코아트웍, 컨퍼런스 열어**

에스코아트웍(지사장 이도상)은 지난 4월 4,5일 양일간에 걸쳐 80여명의 인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교호텔에서 컨



퍼런스 행사를 진행했다. 이도상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플렉스에 관한 최신 동향과 신기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최근 사용되고 있는 판재 및 제판기의 기술적 사양을 소개하고 인쇄, 패키징, 플렉스 시장의 현황과 이들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에스코아트 워크의 제품군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출판 · 관련업계 뉴스

▼ 출협, 블로니아동도서전 참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사장 임홍조)의 지원을 받아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탈리아 블로니아에서 개최된 블로니아동도서전(Bologna Children's Book Fair)에 한국관을 설치했다.

올해로 48회째인 블로니아동도서전은 매년 봄 유서 깊은 중세 대학 도시인 블로니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도서 저작권 거래 전문 도서전이다. 매년 70여 개국에서 5,000여 명의 출판인, 일러스트레이터, 아동 및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해 아동도서에 대한 저작권 거래는 물론, 관련 심포지엄 및 회의를 통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 출판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올해 한국관에는 교원, 길벗어린이, 다산북스 등 국내 아동도서 출판사 27개사와 관련 기관이 참가해 700여 종의 아동도서를 전시하며, 아울러 자사 도서의 저작권 수출을 위한 활발한 홍보 및 상담을 벌였다. 특히 이번 제48회 블로니아동도서전에서는 창작과비평사의 <마음의 집>(김희경 글,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그림)과 시공주니어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강경수 글그림)가 이 각각 논픽션 부문 대상과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돼 본 도서전에 대한 기대와 의미를 배가시켰다.

▼ 파주출판도시, '와글와글'어린이 책잔치 개최

파주출판도시(이사장 이기웅)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와글와글 어린이책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파주시가 후원

하는 이번 행사는 출판도시 입주사 및 외부출판상, 출판관련 단체등 100여개사가 참여하는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잔치 중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행사는 '학습' 개념에서 벗어나 주제대로 신나게 책과 함께 놀고 가라는 의미에서 '와글와글 어린이책잔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한국 아동문학가 100인 서가' 같은 대형 전시를 비롯, 미래의 작가를 위한 '출판도시 어린이백일장', '어린이 작은 영화제', 국내 유일의 레크레이션형 책놀이터 '북올림픽'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를 주최하는 파주출판도시 관계자는 어린이책잔치의 공식 홈페이지(www.pajubfc.org)를 방문, 행사 일정표와 행사장 지도, 사전 예약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더욱 알찬 나들이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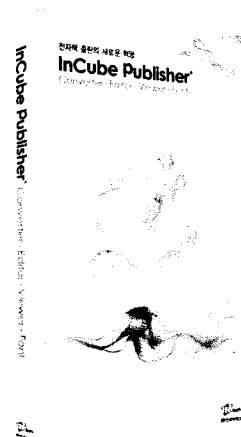
▼ 절판도서 5만권, 전자책으로 부활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전자책 업체 북큐브네트웍스는 '절판 도서의 전자책 복간'에 대한 협약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절판 도서를 전자책으로 복간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설립 이후 단 1회라도 대출된 기록을 갖고 있는 절판 도서 5만권을 선정해 전자책으로 복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자, 출판사 등과 전자책 복간에 따른 권리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절판된 도서들이 전자책으로 복간되면 독자들은 북큐브네트웍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북큐브네트웍스는 웹(www.bookcube.com)에서는 물론 e잉크 기반의 전자책 전용 단말기,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은 "절판 도서를 집필한 저자나 출간한 출판사 모두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큐브테크, 인큐브 퍼블리셔 출시

(주)인큐브테크(대표이사 이원경)가 최근 전자책 제작틀인 '인큐브 퍼블리셔(InCube Publisher)'를 출시했다. 인큐브 퍼블리셔는 전자책 변환틀인 컨버터, EPUB파일 편집틀인 에디터, EPUB 및 PDF 전용 뷰어 및 전자책 전용 폰트 21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큐브 퍼블리셔 컨버터는 익스프레스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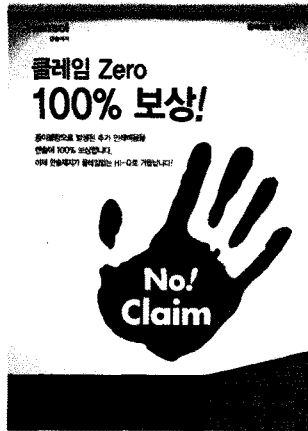
한 기존의 출판물을 익스프레스 8K 프로그램에서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IDPF) 제정 전자책 표준인 이퍼브(EPUB) 파일 형태로 자동 변환시키는 세계 유일의 기술로, 출시 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출판사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자책 제작 및 판매를 위해 통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자책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변환전문업체에 전자책 제작을 의뢰할 수 밖에 없었던 출판사 또는 1인 작가의 고민들을 인큐브 퍼블리셔가 완벽히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 소프트웨어는 작가 및 기획편집자나 편집디자인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전자책을 제작하고 직접 EPUB파일의 관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변환회사가 텍스트, 레이아웃, 그림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유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책 제작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큐브 퍼블리셔 사용시 기존의 종이책 출간을 위해 QuarkXPress로 제작된 문서를 쉽고 빠르게 전자책으로 제작할 수 있어 출판사는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까지 독자층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출판사가 직접 EPUB으로 변환된 문서를 유통할 경우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침체된 출판 시장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 제지 뉴스

▼ 한솔제지 '클레임zero, 100%보상제' 시행

한솔제지(대표 권교택)는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중인 '클레임제로 100%보상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보상을 받은 업체는 두성프린팅(대표 김상규)으로 예상을 넘어서는 신속한 보상과 폭넓은 보상 범위로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임 제로, 100% 보상제'란 한솔제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사 인쇄용지 제품을 구입한 모든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클레임 발생시 제품 전체에 대한 보상 외에도 제품 불량에 따른 재인쇄비 등 후속공정으로 인한 비용까지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한솔제지 권교택 대표는 "클레임 제로, 100% 보상제 실시는 품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시행할 수 없는 제도"였으며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인쇄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고객감동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두성프린팅의 김상규 사장은 "과거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제지사 CS직원이 나오면 답답한 마

음에 그냥 불만만 이야기 하는 식이었으며 종이 외에 별도의 보상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솔제지는 '클레임 제로, 100%보상제'의 효율적 운용과 신속한 클레임 대응을 위해 서울 전 지역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을 전담하는 SE(Service Engineer)를 상시 대기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솔제지, 식목일 맞아 시민들에 화분증정



한솔제지(대표 권교택)는 지난 4월 4일 서울 역삼동 사옥 앞에서 시민들에게 꽃 화분을 나누주는 행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한솔제지 임직원들은 베고니아와 허브 등 화분 5000개와 친환경 용지 홍보물을 출근하는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나누줬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매년 식목일 기념 식수행사를 전국 각지 조림지에서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는 평소 자연을 접하기 힘든 도심 직장인들을 위해 화분 나누주기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 화분 종류와 수를 대폭 늘렸는데도 30여분 만에 화분이 동이 났다"고 말했다. 한솔제지는 이날 화분 나누주기 행사 후 신입사원을 포함한 임직원 100여명이 전북 완주에 위치한 조림지에서 소나무 1000그루를 심는 조림활동도 펼쳤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1966년부터 1만4000ha에 달하는 전국 각지 조림지에 국내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나무를 심었으며 올해에도 국내 조림지에서 지속적으로 조림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솔제지 국내 조림 사업은 연간 1300억원에 달하는 공약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무림, 버스랩핑 광고 실시

무림(대표 김민중)은 지난 4월부터 제지업계로서는 처음으로 브랜드 네오스타의 본격적인 런칭을 위한 버스랩핑 광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버스랩핑 광고는 서울 충무로, 구로, 성수동, 경기도 파주 등 인쇄 및 지류유통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생필품을 사용해 섬유질이 살아있고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만든 친환경종이 '에너紙'라는 제품의 우수성을 주요 고객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 무림페이퍼,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는 최근 국내 아트지인 네오아트 SE와 네오스노우화이트 등 2개 지종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성적표지 인증으로 무림페이퍼는 네오아트 SE 종이 1톤 생산시 이산화탄소 0.9톤, 네오스노우화이트 종이 1톤 생산시 이산화탄소(CO₂) 0.92톤을 각각 발생시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게 됐다고 전했다. 무림페이퍼는 앞으로 전 지종으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탄소성적표지 인증도 국내 제지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 무림P&P, 해외조림사업 진출

무림P&P(대표 김인중)는 지난 4월 19일 조림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인 무림인터내셔널(주)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게 김영식 무림그룹 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무림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 현지 합작사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1000억을 투자해 서울시 면적에 해당하는 65,000ha(서울시 면적)의 조림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조림지에서는 오는 2018년부터 펄프 생산용 목재칩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최대 40만톤 이상의 목재칩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무림P&P는 이번 조림사업 진출로 조림·펄프·제지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의 완성단계를 이루게 되었으며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 일진페이퍼, 한솔페이퍼유통으로 상호변경

일진페이퍼(주) (대표이사 박경재)는 지난 4월 1일 부터 한솔제지 계열사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솔페이퍼유통(주)으로 상호 변경을 했다. 한솔페이퍼유통(주)은 고객의 요구에 충실한 '종이백화점'이란 일진페이퍼의 정통성을 이어 나가며, 국내 최대 종이전문 유통점으로 새롭게 지류유통 전문업체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일진페이퍼(주)가 그동안 지류유통에서 위치를 다지는 기간을 이었다면, 이제 한솔페이퍼유통(주)으로 새롭게 도약할 시기를 가진 것이다.

한솔페이퍼유통(주) 관계자는 “고품질 물류 서비스를 위한 무한 경쟁시대에서 한솔페이퍼유통은 고객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객 맞춤형 물류시스템 도입과 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실시하고 있어, 신 성장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 및 종업원 감동만족, 고객 감동만족이란 세 가지 목표를 통해 상호 변경뿐 아닌 내부와 외부 양면 시스템을 발전해 나가 고객등반 성장이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한걸음 다가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솔페이퍼유통(주) 임직원 모두는 타사와 차별화된 앞선 서비스를 통해 기존 고객들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 발굴에 나서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류 유통점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한솔페이퍼유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한국제지, 남기영 부공장장 임원 선임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최근 남기영 부공장장을 신임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제지 측은 첫 여성 임원 임명은 회사 뿐만 아니라 제지업계에 서도 의의가 큰 것이라고 전했다.

남기영 부공장장은 지난 1995년 한국제지에 입사, 줄곧 연구 분야에 종사하면서 내수성이 요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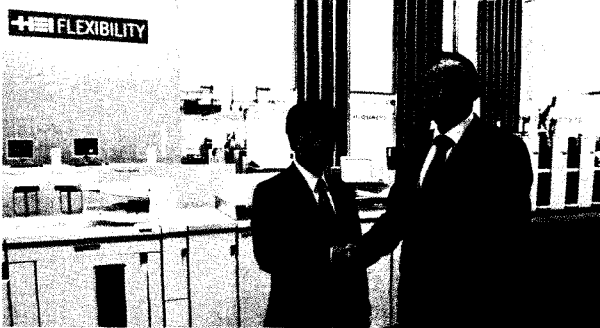
는 국내 맥주, 소주 라벨지의 품질 세계화에 기여했으며 2004년에는 인쇄용지로 미국과 호주에서 최고급으로 인정받는 프리미엄 아트리 엑스프리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어 복사지 하이퍼CC 제품을 개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제지 온산공장 기술연구소가 독자적으로 발명한 종이 표면 Pigment 기술(종이 표면 코팅시 코팅액에 충전제를 추가하여 코팅하는 기술)의 독점권을 취득하는 등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만41세 나이로 제지업계에서는 첫 여성 임원으로 발탁의 영예를 안았다.

>> 해외 뉴스

하이델베르크

다지미디어전시회서 리코사제품 소개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digi:media 전시회에서 하이델베르크사와 리코 사는 디지털과 오프셋이 결합된 솔루션 판매 시작을 확인했다. digi:media에서 하이델베르크는 독일과 영국에서 리코사 제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향후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하이델베르크는 신제품 Ricoh Pro C901 그래픽 아트 버전과 오프셋 제품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애니칼라 기술을 포함한 최고의 오프셋인쇄기술과 디지털 인쇄기술을 연결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다지미디어 전시장에서 하이델베르크는 웹-투-프린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과 오프셋 인쇄 기술을 활용하는 것 뿐 아니라 메일링과 책 제작을 위한 전문적 후가공 작업을 선보였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부스는 Golf Resort Hotel의 홍보물을 예시로 통합 인쇄 작업의 라이브 데모가 주목을 받았다. 이 홍보물 패키지는 디지털 인쇄와 오프셋 인쇄 작업이 어떻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이델베르크

암스테덴 공장에 핸드몰딩시설 확충



하이델베르크 사는 암스테덴 주물공장에서 새로운 핸드-몰딩 시설을 열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새로운 핸드-몰딩시설은 현 주물공장에 이어 3,000 평방미터의 빌딩으로 만들어졌다. 시설확충에 따라 하이델베르크는 최대 162cm의 용지 폭이 가능한 초대형 규격 인쇄기의 인쇄 유닛 사이드 프레임과 압통 실린더 생산이 원활하게 되었다. 이 생산공장에서는 8톤까지 나가는 핸드-몰드 부품들

이 제작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에는 4백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Thorsten Kirchmayer 공장 매니저는 “암스테덴의 하이델베르크 공장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최신의 시설이다. 하이델베르크의 제품 혁신은 항상 공장에 대한 투자와 연결되어 경쟁력을 보호해 왔다. 새로운 핸드-몰딩 공장의 건설은 암스테덴의 미래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하이델베르크

프린트차이나서 경쟁력 향상과 친환경 인쇄 중점 소개



하이델베르크는 4월 9일에서 13일까지 중국, 동관에서 개최된 프린트 차이나(Print China) 전시회에서 참가해 고성능(Hi Performance) 고부가 가치(Hi Value)의 슬로건 하에 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했다. 하이델베르크는 3번 홀에서 2500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스에서 인쇄사가 최신의 기술과 서비스를 사용해 비용 효과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인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하이델베르크는 효율적 패키징 생산, 경쟁에서 두드러지는 창의적인 인쇄 작업, 단통 칼라 인쇄 및 친환경인쇄와 같은 중요한 시장의 흐름에 중점을 두고 전시를 했다.

주제별 전시 내용을 살펴보면 간소화된 제작과정(Lean Manufacturing)에서는 유연한 생산 공정, 높은 수준의 자동화, 단순한 가동법, 매우 짧은 작업준비시간 및 절감된 손지 등에 대한 해법을 소개했다. 그중 프리넥 인테그레이션 시스템은 JDF를 사용하여 인쇄회사 내 중앙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해 작업 관리, 프리프레스, 인쇄 및 후가공에 관련된 모든 생산 과정을 통합할 수 있게 했다. 친환경인쇄(Ecological Printing)에서는 에너지와 손지를 절약하고 공정내 배출물, 사용 원료 및 공정내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인쇄물 및 인쇄사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솔루션이 소개되었다. 스피드마스터 SM 102-8-P, 스피드마스터 CD102-6-L 및 스피드마스터 XL 75-7-L(U)로 저알콜 인쇄가 가능하도록 했고, 프리뷰 인프레스 컨트롤이 장착된 스피드마스터 SM 102-8-P는 손지를 절약하도록 도와 각 작업의 탄소배출을 감소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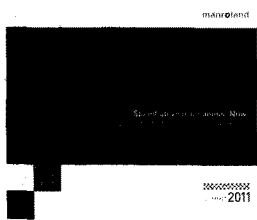
Chua Lianseng 하이델베르크 차이나 사장은 “프린트 차이나는 최신 산업 기술의 내막을 볼 수 있는 2011년 내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 하이델베르크는 모든 고객의 작업에 대한 올바른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선보였다”고 총평을 했다.

▼ 만로랜드, 프린트차이나 2011 성공적인 참가



만로랜드는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프린트차이나 2011에 참가해 <더 높은 인쇄 품질>, <더 높은 생산성>, <더 다양하고 유연한 생산 적용>, <더 신속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위한 만로랜드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 이번 전시회에 만로랜드 CEO인 Gerd Finkbeiner 등 본사의 핵심 임원 등이 다수 참가하여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여러 번의 기계 가동 시현행사를 갖는 등 다양한 볼거리들도 제공했다.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이번 전시회에서 만로랜드는 인쇄물의 고급화를 위해 디자인된 고성능 지향의 현대식 인쇄를 위한 만능 인쇄기인 인라인인스펙터가 장착된 6색 ROLAND 700 HiPrint 코팅인쇄기와 ROLAND 900 XXL 인쇄 유닛을 전시하였다. 또한 Value Added Printing Tunnel도 설치하여 만로랜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쇄 솔루션 시스템들도 선보여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 만로랜드 본사, 매업 서밋 개최



만로랜드는 이달 16일부터 20까지 5일간에 걸쳐 만로랜드 본사에서 전세계 인쇄회사 고객들을 초청하여 매업 서밋(Sheetfed Summit) 행사를 갖는다.

만로랜드 관계자는 “매업 서밋(Sheetfed Summit)는 온라인으로 나아가는 전세계 흐름에서 인쇄업계는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며 최고의 성능을 지닌 장비와 작업 프로세스를 지닌 인쇄회사만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쇄품질의 개선을 위해 인쇄물에는 반드시 그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인라인 강화가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코닥, 프린트차이나서 새 솔루션 선포

코닥은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광둥 모던 인터내셔널 전시 센터에서 열린 프린트차이나 2011에 혁신적이고 새로운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스트만코닥의 부사장이자 이태지역 CDG와

GCG 지역 매니징 디렉터인 스티브 그린은 “중국 인쇄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기회를 위하여 좋은 시간”이라며 “코닥은 모든 분야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뉴디지털 프린팅과 사업 서비스까지 고객들과 상호 교류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인쇄산업에서 비즈니스를 자본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들을 식별하는 것을 도와주는 훌륭한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코닥은 오프셋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 모노크롬 디지털 잉크젯 프레스인 코닥 프로스퍼1000프레스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프로스퍼 1000프레스는 최대 24.5 인치(62.2cm)의 용지에 분당 200m의 속도로 양면 인쇄가 가능하다. 이 분량은 한 달에 1억 2천 만장의 A4용지 또는 US 편지지 사이즈의 인쇄가 가능하며 7000줄의 인쇄까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코닥은 이번 전시회의 또 다른 부스인 월슨 부스에서 호리존의 perfect?binder가 장착된 Print Genius기능을 가진 KODAK NEXPRESS SE3000 디지털 프로덕트 컬러프레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디멘셔널 효과가 향상된 인쇄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 Hellenic Miller Newsprint 코닥 버사마크 VL4200 도입해



헬레닉 밀러 뉴스프린트는 코닥 버사마크 VL4200 프린팅 시스템에 투자한 이후 신규 고객 확보 등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헬레닉 밀러 뉴스프린트의 총괄관리자이자 Cypriot의 거의 모든 해외 신문들을 유통시키는 회사의 사장인 Michalis Iacovides는 “지난 2~3년간 신문 판매량이 감소되어왔다”며 “섬이기 때문에 신문 유통을 항공운송에 의지하고 있고 항공화물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섬에서 자체적으로 프린팅 역량을 높이는 것이 상업적으로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헬레닉 밀러 뉴스프린트는 비용과 유통 압박을 겪은 이후 같은 행보를 걸었던 말타에 위치한 경쟁사, 밀러 뉴스프린트의 비즈니스를 따라 그때부터 유통되고 있는 60개의 국제 신문들은 말타 현지에서 인쇄되었고 이런 비즈니스 구조 변경으로 20%의 신문판매 증가와 가격경쟁력을 회복했으며 당일 배송으로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게 되었다.

Iacovides는 “코닥 솔루션이 완전히 믿을 만하고 우리가 실망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코닥 버사마크 VL 4200 프린팅 시스템의 품질은 뛰어나며 코닥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전문적 지원을 제공해 만족스럽다”는 뜻을 표했다. ☺